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 한시 시어 고찰

윤치부*

차 례

1. 머리말
2. 추사 유배 한시의 시어와 용자 분석
3. 추사 제주 유배 한시의 시어와 용자 용례
4. 맺음말

| 국문초록 |

이 글은 『완당전집』과 『완당선생전집』에 전하는 추사의 제주 유배 한시 작품을 DB화하여 시어와 용자(用字)를 분석한 후 빈도수가 높은 시어와 용자를 추출하고, 기존 연구 성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제주 유배 한시 가운데 빈도수가 높은 3회 이상의 시어는 ‘水仙花, 瀛洲, 風雨, 騎馬 小癡, 神山, 神仙, 慈妃, 天上 村裏, 春風’인데 모두 추사의 제주 유배와 관련된 어휘이다. 이러한 사실은 핵심적인 시어를 의미망으로 재분류하여 2회 이상의 빈도수를 보이는 시어에서도 ‘水仙花, 風雨, 小癡, 神仙, 慈妃, 春風, 癸詹, 冬心, 水仙, 仙人, 兒童, 弱水, 維摩, 赤道, 春雨, 台灣, 海上, 解顏, 紅毛’ 등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추사의 제주 유배 한시의 시어를 역방향으로 정리하면 10회 이상 사용된 시어의 소재는 ‘人(13), 年(13), 風(13)’으로 인간과 시간과 자연이 주요 소재로 작용한다. 추사의 제주 유배 한시에서 추출된 용자를 의미망으로 재분류하면 ‘天(32), 風(27)’이 압도적으로 많은 빈도수를 보이며, 10회 이상 사용된 소재는 ‘水, 春, 雨, 海, 山, 花, 雲’ 등으로 모두가 제주의 자연과 관계된 글자들이다. 이로써 추사가 제주 유배 생활 중에 관심을 보였던 대상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은 추사의 유배 생활과 시 세계를 들여다보는 데 핵심적인 용자들이다. 추사의 제주 유배 한시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 시어는 ‘水仙(花)’인데 6회나 사용되었다. 존경하는 다산 정약용 선

* 제주대학교 초등국어교육전공 교수

생과 수선화에 대한 남다른 추억이 있는 추사는 제주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수선화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데, 자연스레 수선화는 추사의 고양된 정서를 대표하는 시적 사물로 자리매김한다. 이 수선화는 제주에서 유배 생활하는 추사 자신을 비유한 대상으로서 신선같이 여기며 자기의 책상 앞에 옮겨 심는데, 이를 통해 현실을 초탈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다듬는다. 이 글에서 제시한 추사의 제주 유배 한시에 대한 시어와 용자의 분석은 기존의 연구 성과와 비교적 일치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제주 유배 한시를 설정하거나 주된 소재 파악에는 소홀함으로써 시 세계의 초점 파악에 한계점도 드러난다.

핵심어 : 추사 김정희, 제주 유배 한시, DB화, 시어, 용자

1. 머리말

한 사람의 삶에서 어떤 스승을 만나고 어떤 인생의 고비를 겪었는가는 그 사람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추사 김정희에게도 결코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추사는 15세에 북학파의 조정 박제가에게 사사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학문 연마를 시작하여 20대 중반에 60일간의 연경 체함을 통해 새로운 문물에 눈 뜨면서 학문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특히 추사는 이때 완원(阮元)과 소동파를 흠모하는 옹방강(翁方綱)과 사제의 의를 맺음으로써 경학·고증학·금석학 등 학예의 길을 넓힌다.

추사에게 인생의 고비는 제주와 함경도 북청에서의 10년 가까운 두 번의 남관북적(南竄北適)이었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추사는 이 시기를 통해 고뇌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인고의 시간을 갖는다. 이 가운데서도 인생의 지천명과 이순의 시기에 8년 3개월의 제주에서의 위리안치(圍籬安置) 유배 생활은 추사체를 확립하고 세한도를 그리며 교학 활동을 하는 등 학문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더욱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성찰과 고뇌는 자연스럽게 시 작품으로도 형상화되었으니 지금까지 전해지는 45제 74수의 제주 유배 한시가 이를

입증한다.¹⁾

- 1) 지금까지 제주 유배 한시 작품 수를 처음으로 언급하기는 부영근의 논문에서 51제 81수이다.(부영근, 『秋史 金正喜의 濟州 流配詩 考察』, 『영주어문』 11, 영주어문학회, 2006, 25-26쪽.) 그러나 이 중 적어도 <江村讀書>, <三泖喜晴>, <元宵述懷>, <鵲巢>, <題蘭>, <嘲金生如筠漆癩> 등 6제 6수는 제주 유배 한시로 보기가 어렵다. 이들 작품에 대해서는 논문마다 제주 유배 한시로 보기도 하지만 달리 보기도 한다. 먼저 <江村讀書>, <三泖喜晴>, <元宵述懷>, <題蘭>은 제주에서 해배 되어 서울 龍山의 강마을인 江上에 七十二鷗草堂이란 정자를 짓고 살 때이거나 북청에 유배된 후 지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추사가 쓴 편지에는 추사의 아호로 사용했던 ‘三泖’라고 낙관한 것이 있고, 그동안 뜬뒀던 난초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한 시절이다.(유홍준, 『완당평전 2: 산은 높고 바다는 깊네』, 학고재, 2002, 528-598쪽.; 權赫淳, 『阮堂 金正喜 漢詩의 自然觀 研究』, 弘益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9, 153쪽.) <元宵述懷>는 67세 때 북청에서 두 번째로 유배된 후 맞은 정월 보름날의 감회를 읊은 시이고(扈承喜, 『秋史 金正喜의 文學 研究: 詩論과 詩를 中心으로』, 梨花女子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3, 135쪽.; 盧在俊, 『秋史 金正喜의 晩年期 삶의 詩의 形象化 樣相 研究』, 公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1, 48쪽.) <題蘭>은 不二禪蘭圖에 실려 있는 題畫詩로 불이선란도는 북청 유배에서 해배 된 후 과천에서 그린 작품이다.(盧在俊, 위의 논문, 43쪽.) <鵲巢>는 예전에는 제주에 까치가 없었기에 까치집이 있을 수가 없다. 제주에 까치집이 없었다는 사실은 제주 한시들에서 이를 뒷받침한다. 이를테면 조선조 성종 때 제주주쇄경차관이었던 최부의 제주 한시(崔溥, <耽羅詩 25>, 『錦南崔先生文集』, 便從父老問風土, 冬苦風威夏苦雨. 草木昆虫傲雪霜, 禽無傷鵲獸無虎.), 조선조 선조 때 제주안무어사였던 김상헌의 제주 한시(金尙憲, <朝天館雜詠 7>, 『南槎錄』, 久客元多忤, 茲鄉百不娛. 簷間失喜鵲, 屋上對憎鳥. 呼諾唯僮僕, 扶持只藥爐. 歸驢定何日, 春水汎西湖.), 조선조 숙종 때 제주에 유배되었던 김춘택의 제주 유배 한시(金春澤, <七夕不雨詩>, 『北軒居士集』 2, 天老無知但冥冥, 亦恐牛女俱忘情. 濟州無鵲也有鳥, 信向銀河作橋無.), 조선조 영조 때 금오랑으로 잠시 제주를 다녀갔던 신광수의 제주 한시(申光洙, <滯館無聊約逐韻第次拈得一字日賦五七各一律排悶遣懷詩 4>, 『石北集』, 滄海浮千里, 衣冠入九夷. 至今無鵲地, 將見有花時.), 조선조 정조 때 제주에 유배되었던 조정철의 제주 유배 한시(趙貞詰, <敬次悔軒羅老島謫中韻書即事詩>, 『靜軒瀛海處坎錄』 1, 海遠無巢鵲, 城荒有隊鴉. 可憐賈太傅, 平世恨長沙.)에서도 하나 같이 제주에는 까치나 까치집이 없다고 노래한다. 이런 혼란은 정후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鵲巢>의 3구에 보이는 시어인 ‘靑城’을 제주로 각주를 달고 있다.(金正喜, 鄭後洙 譯, 『秋史 金正喜 詩 全集』, 풀빛, 1999, 546쪽.) 제주의 까치는 1989년 한 신문사와 항공사가 공동으로 50여 마리를 제주에 방사하면서 지금처럼 개체 수가 늘어난 것이다. <嘲金生如筠漆癩>도 제주 유배 한시로 보기는 어렵다. 내용상으로 보면 옷이 오른 김여균을 조롱하는 내용인데, 추사가 제주에서 교학 활동을 하면서 맺은 제자로는 姜師公, 朴啓瞻, 許珉, 金于民, 李時亨, 金麗鍾, 李漢雨, 金九五, 姜道淳, 姜文錫, 姜琦璣, 金左謙, 洪錫祐 등이다.(梁鎭健, 『秋史 金正喜의 濟州 流配 教學思想 研究』, 『濟州島研究』 9, 濟州學會, 1992, 192쪽.) 그런데 북청 유배 시절의 대표적인 영사시인 石棼詩卷의 款識에 ‘阮堂老人書贈金生如筠’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김여균은 제주에서 만난 인물이다.

추사의 제주 유배 한시에 대해서는 비교적 활발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양순필은 추사의 유배 한시를 중심으로 유배문학의 전개를 시도하였으며²⁾, 김태수는 추사의 유배시를 현실과의 갈등의 모습, 현실의 갈등을 넘어선 탈 현실의 양상, 실학적 감흥의 세계로 분류하여 고찰하고 있다.³⁾ 조규백은 추사의 유배시를 검토하여 실마리를 설정하고 그것을 몇 가지로 분류·분석하여 작품에 관통하는 질서의 핵심과 창작 저력과 생명력의 비결 및 현대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규명해내고 있는데,⁴⁾ 관심을 갖게 한다.

이 글에서는 추사의 제주 유배 한시 시어를 고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한시 연구의 첫걸음은 시어의 뜻을 파악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⁵⁾ 시어의 수준은 그대로 그 시인의 시적 성취를 보여주는 한 단서이면서 동시에 그 나라 민족의 예술 정신의 수준을 반영하는 한 척도이기 때문이다.⁶⁾

따라서 구체적으로 『완당전집』과 『완당선생전집』에 전하는 45제 74수의 시 작품을 DB화하여 시어와 용자(用字)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빈도수가 높은 시어와 용자를 추출하고, 기존 연구 성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⁷⁾ 나아가 기존 추사의 한시 연구 성과에 시어와 용자 분석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추사 문학세계의 타당성을 더욱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다. 또한 『阮堂先生全集』에는 수록되어있지 않으나 이본인 『阮堂全集』에 수록된 예안이씨의 죽음을 노래한 <悼亡>도 제주에서 쓴 작품이다. 이로써 추사의 제주 유배 한시는 부영근의 논문에서 언급한 <江村讀書>, <三泖喜晴>, <元宵述懷>, <鵲巢>, <題蘭>, <嘲金生如筠漆痕>를 제외하고 <悼亡>을 추가하면 총 45제 74수가 된다.

- 2) 梁淳珪, 『秋史 濟州流配漢詩考』, 『논문집』14(인문학편), 제주대학교, 1982, 45-68쪽.
- 3) 金泰洙, 『秋史 流配詩 研究』, 『漢文學論集』10, 檀國漢文學會, 1992, 229-272쪽.
- 4) 조규백, 『秋史 金正喜의 濟州島 流配漢詩文에 담긴 문학세계 탐색 : 중국 문인 蘇東坡와 관련하여』, 『中國研究』32, 韓國外國語大學校 中國研究所, 2003, 193-212쪽.
- 5) 金永峯, 『漢詩 理解의 단계론 고찰』, 『冽上古典研究』12, 冽上古典研究會, 1999, 5-30쪽.
- 6) 金재홍, 『한국현대시 詩語辭典』, 고려대학교출판부, 2017, 8쪽.
- 7) 한시 작품을 DB화하여 시어와 용자를 분석한 작업으로서는 홍순석의 논문이 대표적이다.(홍순석, 『포은한시의 시어와 그 쓰임새』, 『圃隱學研究』1, 圃隱學會, 2007, 185-222쪽.)

2. 추사 제주 유배 한시의 시어와 용자 분석

여기에서는 추사의 제주 유배 한시를 고찰하기 위하여 원전 자료를 DB화하여 시어와 용자를 분석하고자 한다. 『완당전집』과 『완당선생전집』에 수록된 제주 유배 한시들을 먼저 비교 분석하여 추출하고 이 작품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어의 빈도수를 정리한 후 이를 다시 역방향으로 정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추사가 제주 유배 한시 작품에서 즐겨 사용한 시어와 소재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1. 추사 제주 유배 한시의 시어 분석

『완당전집』과 『완당선생전집』에 수록된 제주 유배 한시들에 사용된 시어는 대략 751개이다. 이 중에서 사용 빈도수가 높은 시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1> 추사 제주 유배 한시의 시어 분석

빈도수	시 어
5회	不知
4회	水仙花, 瀛洲, 風雨
3회	騎馬, 小癡, 神山, 神仙, 慈妃, 天上, 村裏, 春風
2회	癸詹, 區田法, 老人星, 丹青, 戴笠, 島童, 冬心, 東風, 墨緣, 分明, 三家, 上下, 桑海, 扇面, 仙人, 世間, 水仙, 尋常, 兒童, 弱水, 靈臺, 牛宮, 偶吟, 偶作, 異事, 一點, 赤道, 前因, 指頭, 指畫, 天然, 天風, 清秋, 村舍, 春雨, 台濟, 海上, 解顏, 紅毛, 畫裏, 戲題

앞의 표에서 보듯이 3회 이상 사용된 시어는 12개로 ‘不知(5), 水仙花(4), 瀛洲(4), 風雨(4), 騎馬(3), 小癡(3), 神山(3), 神仙(3), 慈妃(3), 天上(3), 村裏(3), 春風(3)’인데 모두 추사의 제주 유배와 관련된 어휘이다. ‘水仙花’와 ‘水仙’은 결국 하나의 시어이므로 6회가 사용되어 가장 빈도수가 많은 시어가 되는 셈이다. 2회 이상 사용된 시어는 ‘癸詹, 老人星, 島童, 冬心, 三家, 桑海, 牛宮, 村舍, 海

上' 등 41개이다. 여기에 포함된 시어도 제주 유배와 같이 외지에서 심회를 내포한 것들이다.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추사의 제주 유배 한시에서의 핵심적인 시어를 의미망으로 재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추사 제주 유배 한시의 시어 의미망 분석

분류	어휘수	시 어(빈 도)
자연	126	水仙花(4), 風雨(4), 春風(3), 水仙(2), 赤道(2), 春雨(2), 海上(2), 碯水, 江干, 江色, 絳雲, 江楓, 鷄冠, 膏澤, 光芒, 鷗鷺, 羅浮蝶, 蘭花, 南瓜蔓, 楠樹, 南風, 老人星, 丹木, 大海, 桃李, 桃花, 桃花風, 獨豹, 洞口, 洞裏, 冬青葉, 東風, 斗牛, 麻麥, 萬株, 萬枝, 萬朵, 明月, 木金, 蟠桃, 方塘, 百禽, 繁雲, 碧溪, 碧漾, 碧海, 茯苓, 峯峯, 翡翠, 四海, 山光, 山中, 山川, 三山, 三百朵, 仙雲, 雪裏, 雪夜, 雪後, 松竹, 松風, 水氣, 壽星, 壽曜, 壽曜星, 茱萸, 數朵, 水土, 時雨, 神山, 野席, 弱水, 兩丸, 蓮葉, 蓮花, 簪龍, 映山紅, 雨露, 雨雨風風, 雨後, 圓缺, 雲煙, 流水, 戎葵, 銀魚, 日月, 離恨天, 一丈紅, 一朵, 紫牛, 潺湲, 赤藤, 庭草, 種薑, 朱鳥, 天半, 天邊, 天上, 千朵, 天葩, 天風, 天河, 清水, 青天, 清淺, 清秋, 艸木, 叢竹, 春江, 春山, 春鶯, 春寒, 春鴻, 朶朶, 芭蕉, 荷輪, 寒松, 海湄, 海天, 好風, 紅雲, 火樹, 花豬, 曉雲, 花紅, 義輪
인물	67	小癡(3), 慈妃(3), 神仙(3), 癸詹(2), 仙人(2), 兒童(2), 維摩(2), 台濟(2), 賈鄭, 卅女童男, 觀我齋, 舊顏, 歸人, 金煥心, 老古錐, 老師, 老子, 達峻, 大機大用, 都都平丈, 島童, 麻姑, 文殊, 米家, 潘舍人, 凡夫, 夫妻, 北人, 使君, 士夫, 詞宗, 石帆, 小翠, 眼公, 黎家, 尤齋, 雲衲, 元祐罪人, 月姥, 維摩, 乙那, 里魁, 李杜, 彝齋, 張繼, 紫霞, 前賢, 主人, 廚人, 紫霞, 織女, 秦童, 天龍, 天皇, 麤材, 逐臣, 土人, 坡公, 坡老, 稗販, 韓歐, 韓應者, 海丁, 行人, 許維, 畫人, 畫者
지리	39	弱水(2), 紅毛(2), 江亭, 居夷, 劔池, 姑蘇, 具區, 橘林, 九韓, 綠野, 大食, 大靜, 桃源, 洞口, 東門祠, 東韓, 望洋臺, 輞川, 樊上, 碧蘆舫, 蓬萊, 富士山, 三峯, 三山, 西京, 石蘭山, 剡竹, 蘇州, 是亦樓, 黎家, 瀛洲, 鰲背, 瑤池, 離恨天, 千人石, 天台, 惠州, 禾北鎮, 喚風亭
	4	南極, 萬里, 天邊, 海外
심회	35	冬心(2), 解顏(2), 可憐, 可笑, 可憎, 冷落, 悼亡, 得得, 得意, 無情, 浮由, 鼈廝, 悲歡, 三千丈, 生憐, 逍遙, 隨緣, 辛苦, 辛勤, 心情, 鉛

분류	어휘수	시 어(빈 도)
		淚, 艷情, 贏得, 有情, 淋漓, 任他, 適情, 折磨, 志事, 此心, 青眼, 彈淚, 破悶, 鶴夢, 解脫
세월	34	桑海(2), 前因(2), 古松, 古泉, 舊躑, 老屋, 當年, 當日, 萬古, 明年, 百年, 百十年, 三年, 三千年, 三千丈, 桑田, 須臾, 時時, 揚塵, 年前, 五百年, 悠悠, 流傳, 六十年, 依樣, 二年, 一萬八千字, 昨宵, 前身, 至今, 秦餘, 陳篇, 滄桑, 千秋萬歲
기호	13	墨緣(2), 高着, 局面, 橘裏丁丁, 別趣, 書畫, 試茶, 新醅酒, 咏棋, 一杯, 一鴟, 中聖, 品茶
생애	9	白髮, 富貴, 鬢毛, 仙緣, 瘦觀, 遠謫, 此生, 千艱, 平生

위의 표에 제시된 시어 가운데 각 분류 항목에서 2회 이상 사용된 것을 보면 ‘水仙花(4), 風雨(4), 小癡(3), 神仙(3), 慈妃(3), 春風(3), 癸簷(2), 冬心(2), 水仙(2), 仙人(2), 兒童(2), 弱水(2), 維摩(2), 赤道(2), 春雨(2), 台濟(2), 海上(2), 解顏(2), 紅毛(2)’이다. 이들 시어만으로도 추사의 제주 유배 한시의 시 세계를 가늠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 가운데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시어는 역시 6회나 사용된 ‘水仙(花)’이다. 이 수선화는 제주에서 유배 생활하는 추사 자신을 비유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⁸⁾ 수선화는 예나 지금이나 제주 곳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시적 매개물이다. 그러나 수선화는 매화나 국화처럼 다른 한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시어이기에 추사의 제주 유배 한시에서의 의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 외에 ‘風雨, 神仙, 仙人, 海上’들도 제주에서 유배 생활과 밀접한 시어들이다. ‘神仙, 仙人’도 신선들이 살고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삼신산의 하나인 영주산과 관계있는 시어들이다. 또한 ‘小癡’나 ‘慈妃’나 ‘癸簷’은 모두 추사가 제주 유배시 제자들로서 서화를 배우거나 경학을 배우거나 전각을 배운 인물들

8) 梁淳琿, 『朝鮮朝 流配文學 研究: 濟州島를 중심으로』, 建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2, 71-72쪽.; 扈承喜, 앞의 논문, 91-93쪽.; 金泰洙, 앞의 논문, 237-238쪽.; 鄭後洙, 『秋史 金正喜의 濟州島 流配生活』, 『한성어문학』15,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1996, 44-46쪽.; 유홍준, 앞의 책, 480-482쪽.; 조규백, 앞의 논문, 202-205쪽.; 부영근, 앞의 논문, 28-29쪽.; 權赫淳, 앞의 논문, 199쪽.; 장승희, 『추사 김정희의 제주 인식』, 『耽羅文化』5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7, 102-104쪽.

이다.⁹⁾ 소치 허련은 세 차례나 제주를 찾아와 추사에게 글과 그림을 배웠고, 자기 강위는 제주에 와서 4년간 추사와 함께 지내며 경학을 배웠으며, 계첩 박혜백은 붓을 만드는 장인으로서 추사에게 전각을 배웠다.

2.2. 주요 시어의 역방향 분석

『완당전집』과 『완당선생전집』에서 추출한 시어를 역방향으로 정리하면, 추사의 제주 유배 한시에서 즐겨 사용한 시어와 소재 등이 드러날 것이다. 추출된 자료 가운데 3회 이상 사용된 소재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 추사 제주 유배 한시의 시어 역방향 분석-用字例

어휘수	용자	용례
13	人	歸人, 銅人, 無人, 美人, 潘舍人, 北人, 仙人(2), 玉美人, 元祐罪人, 主人, 土人, 行人, 畫人
	年	今年, 當年, 明年, 百年, 百十年, 三年, 三千年, 雙年, 五百年, 六十年, 二年, 隻年, 逐年
	風	南風, 桃花風, 東風(2), 帆風, 西風, 松風, 隨風, 雨雨風風, 仁風, 宗風, 天風(2), 春風(3), 好風
6	中	鏡中, 途中, 瞳中, 山中, 野中, 掌中
	家	米家, 三家, 黎家, 人家, 自家, 村家
	水	礪水, 弱水(2), 流水, 田水, 清水, 八水
	雲	絳雲, 繁雲, 仙雲, 五雲, 紅雲, 曉雲
	情	無情, 世情, 心情, 艷情, 有情, 適情
	天	大羅天, 先天, 性中天, 離恨天, 青天, 海天
5	光	白毫光, 山光, 恩光, 窓光, 村光
	得	那得, 得得, 不得, 贏得, 透得
	來	南來, 新來, 往來, 元來, 自來
	山	富士山, 三山, 錫蘭山, 神山(3), 春山
	上	無上, 樊上, 世上, 天上(3), 海上(2)
	然	居然, 偶然(2), 終然, 天然(2), 超然
	日	今日, 臘日, 當日, 白日, 鎮日
	花	蘭花, 桃花, 生花, 水仙花(4), 蓮花

9) 서명주, 「秋史 金正喜의 流配期 情緒와 茶思想 研究」,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49-57쪽.

어휘수	용자	용례
4	童	島童(2), 兒童(2), 秦童, 村童
	裏	洞裏, 雪裏, 村裏(2), 畫裏(2)
	面	局面, 扇面(2), 便面, 會面
	事	麥事, 異事(2), 志事, 花事
	色	江色, 山色, 生色, 五色
	星	老人星(2), 壽星, 壽曜星, 直星
	時	時時, 十二時, 有時, 逐時
	身	金身, 前身, 通身, 後身
	心	金煥心, 冬心(2), 匠心, 此心
	雨	時雨, 詠雨, 春雨(2), 風雨(4)
	亭	江亭, 蘭亭, 亭亭, 喚風亭
	海	大海, 碧海, 四海, 桑海(2)
3	見	俯見, 想見, 再見
	氣	寶氣, 水氣, 元氣
	堂	堂堂, 升堂, 草堂
	臺	望洋臺, 靈臺(2), 雲臺
	圖	戴笠圖, 負圖, 蕉圖
	樓	瓊樓, 百尺樓, 是亦樓
	馬	騎馬(3), 龍馬, 下馬
	帆	歸帆, 石帆, 春帆
	法	區田法(2), 妙法, 抽換法
	峯	萬二千峯, 峯峯, 三峯
	生	長生, 此生, 平生
	仙	銅仙, 水仙(2), 神仙(3)
	世	來世, 生世, 人世
	眼	眉眼, 入眼, 青眼
	緣5	墨緣(2), 仙緣, 隨緣
	影	顴影, 燈影, 帆影
	外	門外, 城內外, 海外
	朝	今朝, 臘朝, 當朝
	地	大地, 北地, 易地
	處	多處, 多處, 多處

<표3>에서 정리된 자료를 통해서 추사의 제주 유배 한시에서 빈도수가 높게 사용된 소재를 살필 수 있다. 10회 이상 사용된 시어의 소재는 ‘人(13), 年(13), 風(13)’이다.

‘人’에 딸린 시어는 ‘歸人, 銅人, 無人, 美人, 潘舍人, 北人, 仙人(2), 玉美人, 元

祐罪人, 主人, 土人, 行人, 畫人’인데, 표류선을 따라 돌아온 사람을 뜻하는 ‘歸人’, 구리 사람인 ‘銅人’, 매화를 뜻하는 ‘美人, 玉美人’, 중국 운남성에 거주하던 종족을 뜻하는 ‘潘舍人’, 소동파를 의미하는 ‘元祐罪人’을 제외한 나머지 시어들은 추사의 제주 유배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시어들이다.

‘年’에 딸린 시어는 ‘今年, 當年, 明年, 百年, 百十年, 三年, 三千年, 雙年, 五百年, 六十年, 二年, 隻年, 逐年’ 등인데, 이 중 소동파 시대를 의미하는 ‘當年’, 관아재 조영석이 죽은 후 지난 시간을 뜻하는 ‘百十年’, 해그림자와 관계된 ‘三千年’, 구리로 주조한 사람의 형상인 동인과 관계된 ‘五百年’을 제외한 나머지 시어들인 ‘今年, 明年, 百年, 三年, 雙年, 六十年, 二年, 隻年, 逐年’ 등은 제주 유배 생활 중 추사의 세월에 대한 의식을 담고 있는 시어들이다.

‘風’에 딸린 시어는 ‘南風, 桃花風, 東風(2), 帆風, 西風, 松風, 隨風, 雨雨風風, 仁風, 宗風, 天風(2), 春風(3), 好風’ 등인데, 바둑판의 형세를 형상화한 ‘南風’, 임금의 은택의 의미인 ‘仁風’과 불교의 풍격을 의미하는 ‘宗風’을 제외한 나머지 시어들이 제주도라는 섬 특유의 자연환경에서 추사의 생활과 밀접한 자연현상의 의미로 쓰였다. 복사꽃 부는 바람이 돛에 불어 돌아가게 한다는 ‘桃花風, 帆風’, 비를 내리게 하는 ‘東風’, 구름이 걷히며 하늘을 푸르게 하는 ‘西風’, 솔바람 부는 산골짜기의 ‘松風’, 가볍고 빠른 수레를 달리며 신선 세계를 오르내리게 하는 ‘隨風’, 층구름을 걷히게 하는 ‘雨雨風風’, 속이 달거나 걸이 쓴 것을 헤아리지 않고 인연을 따른다는 ‘天風’, 영산홍을 피우게 하거나 돌아가는 배에 봄바람의 꿈을 의탁하는 ‘春風’, 봄날의 배를 돌아오게 하는 ‘好風’ 등은 자연현상의 바람이다. 이로써 추사의 제주 유배 한시에는 인간과 시간과 자연이 주요 소재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水(6), 雲(6), 情(6), 天(6), 光(5), 山(5), 日(6), 花(6)’도 추사의 제주 유배와 관련된 시어로 적잖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요 소재로 작용하고 있다.

<표3>에서 나타난 추사 제주 유배 한시 시어의 역방향 분석에 따라 용자례를 의미망으로 재분류하면 <표4>와 같다.

<표4> 추사 제주 유배 한시의 시어 역방향 의미망 분석

분류	어휘수	시 어
인물	14	歸人, 銅人, 無人, 美人, 仙人(2), 玉美人, 元祐罪人, 主人, 土人, 行人, 島童(2), 兒童(2), 秦童, 村童
강하	9	大海, 碧海, 四海, 桑海(2), 澗水, 弱水(2), 流水, 田水, 清水
동물	6	騎馬(3), 龍馬, 下馬, 鯨魚, 得魚, 銀魚
식물	4	蘭花, 桃花, 生花, 水仙花(4), 蓮花
누대	4	瓊樓, 百尺樓, 是亦樓, 望洋臺
성신	3	老人星(2), 壽星, 壽曜星
풍속	3	冬青葉, 馬磨, 直星
산야	3	三山, 神山(3), 春山
지명	1	江亭

인물의 ‘銅人, 元祐罪人’과 강하의 ‘弱水’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 식물, 동물, 풍속, 누대, 성신, 산야, 지명 등의 시어들이 추사의 제주 유배 생활과 관련된 시어들이다. 여기서 ‘元祐罪人’은 송나라 철종 원우 연간에 해주에 유배 왔던 소동파로 사제의 의를 맺은 옹방강이 흠모했던 인물로서 추사도 더불어 추앙하게 되는데, 이는 추사의 제주 유배 한시에서도 자연스럽게 소동파의 시를 수용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¹⁰⁾

2.3. 추사 제주 유배 한시의 용자 분석

다음으로 『완당전집』과 『완당선생전집』에서 빈도수가 높게 사용된 용자를 추출하여 이를 다시 유형별로 정리하면 <표5>와 같다.

10) 추사의 제주 유배 한시에서는 ‘元祐罪人’ 말고도 소동파의 경칭인 ‘坡公’(金正喜, <又題小翠寫慈妃像詩 1>, 『阮堂全集』10, 長吉通眉攝後身, 坡公瘦觀作前因. 匠心若較蘭亭面, 定武神龍孰是真.)과 ‘坡老’(金正喜, <詠雨詩 3>, 『阮堂全集』10, 春雨冥濛夕掩關, 一犁田水想潺湲. 任他笑吹黎家路, 坡老當年戴笠還.)의 시어들도 보임으로써 이를 더욱 뒷받침한다. 이처럼 추사가 제주에서 유배 생활 중 소동파에게 경도됨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꾸준히 언급되었다.(金泰洙, 위의 논문, 235쪽.; 조규백, 위의 논문, 200-202쪽.; 王建宇, 「金正喜와 蘇軾의 流配詩 比較研究」, 中央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7, 17-25쪽.)

〈표5〉 추사 제주 유배 한시의 용자 유형별 빈도수

분류	용 자(빈 도 수)
천체	天(32), 月(4), 星(5)
기상	風(27), 雨(12), 雲(11), 雪(5), 寒(3)
산천	水(16), 海(11), 山(11), 川(3)
계절	春(12), 秋(3), 冬(3)
식물	花(11), 桃(5), 蘭(2), 松(4), 竹(4), 梅(1)
조류	鳥(1), 鷗(1), 鶴(1)
유력	行(6), 還(7), 別(5), 歸(4), 離(4), 落(1), 遊(1)
객회	心(5), 憐(3), 淚(2), 獨(1)
색채	靑(10), 白(3), 蒼(2)
수사	一(33), 千(13), 三(10), 百(9), 萬(8), 二(5), 五(5), 十(4), 四(2), 七(2), 八(2), 六(1)
취향	書(9), 墨(9), 詩(6), 圖(6), 茶(3), 畫(2), 酒(2)
기타	不(27), 無(17), 有(10), 可(7), 能(4) 夢(3), 燈(2)

〈표5〉에서 보듯이 10회 이상 사용된 용자는 ‘一(33), 天(32), 風(27), 不(27), 無(17), 水(16), 千(13), 春(12), 雨(12), 山(11), 海(11), 花(11), 雲(11), 靑(10), 三(10), 有(10)’이다. 이 중 20회 이상 사용된 소재는 ‘天(32), 風(27)’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빈도수를 보이며, 10회 이상 사용된 소재는 ‘水(16), 春(12), 雨(12), 海(11), 山(11), 花(11), 雲(11)’ 등으로 추사가 제주 유배 생활 중에 관심을 보였던 대상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추사의 유배 한시에서 글자 수가 가장 많은 유형은 수사로 ‘一, 千, 三, 百, 萬, 二, 五, 十, 四, 七, 八, 六’ 등 12자이고, 다음이 유력의 ‘行, 還, 別, 歸, 離, 落, 遊’ 등 7자와 취향의 ‘書, 墨, 詩, 圖, 茶, 畫, 酒’ 등 7자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수사에서 다양한 숫자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一’이 33회로 가장 많이 쓰임으로써 이를테면 도은 이숭인이나 포은 정몽주의 시에서 ‘一’이 가장 많이 쓰이는 양상과 같으나¹¹⁾ 양사언이 시에서 ‘三’이 많이 쓰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¹²⁾ 계절에서는 ‘春(12)’이 많고, 식물에서는 ‘花(11)’가 많으

11) 梁鎭潮, 「李崇仁 漢詩에 나타난 詩語分析: 疊字와 疊韻을 中心으로」, 『語文研究』27/4, 韓國語文教育研究會, 1999, 89쪽.

며, 색채에서는 ‘靑(10)’이 많은데 이들은 어느 정도 서로 연관된 용자들이다. 전반적으로 천체, 기상, 산천, 계절, 식물, 조류 등의 자연물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3. 추사 제주 유배 한시 시어와 용자의 용례

이 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 빈도수가 높은 유의미한 시어와 용자의 용례를 시작품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3.1. ‘天’의 시어와 용자

추사의 제주 유배 한시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글자는 天(32)이다. ‘天功, 天龍, 天半, 天邊, 天府, 天上, 天然, 天葩, 天品, 天河, 大羅天, 離恨天, 靑天, 海天’은 추사의 제주 유배 한시에서 쓰인 시어들이다.

<표6> 추사 제주 유배 한시의 ‘天’ 시어와 용자례

용자	시어	빈도수	작 품
天	天功	1	<次癸詹 1>
	天龍	1	<題小癡指畫>
	天半	1	<小遊仙詞 9>
	天邊	1	<偶作>
	天府	1	<小遊仙詞 5>
	天上	3	<口號七絕贈江亭金生 5>, <小遊仙詞 7>, <小遊仙詞 11>
	天然	2	<冬靑葉大如手掌可以供書>, <題小癡指畫>
	天葩	1	<年前禁水仙花>
	天品	1	<韓生應者以紫霞書卷要余一語走寫以示>
	天河	1	<小遊仙詞 13>
	大羅天	1	<小遊仙詞 1>

12) 홍순석, 앞의 논문, 195쪽.

용자	시어	빈도수	작 품
	離恨天	1	<小遊仙詞 10>
	青天	1	<水仙花在在處處可以谷量田畝之間尤盛土人不知爲何物 麥耕之時盡爲鋤去>
	海天	1	<題彝齋書許維扇面後 2>

추사는 55세 때인 1840년(헌종 6) 9월 2일 윤상도 옥사에 연좌되어 대정현에 위리안치되도록 명받는다. 의금부도사 김오랑의 호송하에 전주·남원·나주·해남을 거쳐 9월 27일 완도에서 해 뜰 무렵 배를 탄다. 해상에서 거센 풍랑과 천둥 벼락까지 만나는데, 김오랑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뱃멀미로 났을 잃고 서로 부둥켜안고 통곡하나 추사는 뱃사공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오히려 여유로웠다. 그날 저녁 제주목의 별도포에 도착하여 이곳 민가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다음날 제주성으로 들어가 아전인 고한익(高漢益)의 집에 잠시 머문다. 큰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10월 1일에야 제주성을 출발하여 이틀 만에 80여 리 떨어진 제주에서도 벽지인 서남쪽 끝 대정현에 도착한다. 첫 적소는 군교(軍校) 송계순(宋啓純)의 집이었다. <표6>에서 보듯이 ‘天’에 딸린 시어들을 통해서 그 같은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하늘은 인간을 장악하여 좋은 운명과 나쁜 운명을 내리기에 운명이나 운수 또는 기회를 상징한다.¹³⁾ 하늘 끝 아득한 변방인 절해고도에서 귀양살이라는 현실 세계를 초탈하여 신선 세계를 노래하며 지내려 할수록 속세에서의 이별의 한을 지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한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기에 제주의 자연에 더욱 침잠할 수밖에 없었고, 침잠할수록 이러한 자연현상마저도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이 느낀다. 그러면서도 현실적 자아는 임금님의 은택이 바다와 하늘에 퍼짐을 노래하는 시적 화자가 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자연스럽게 시와 서예와 그림에 몰입하는 시서화의 시간에 빠져든다.

屢燕瑤池鬢已蒼, 여러 번 요지 잔치에 참여하니 귀밑머리가 세었는데

13) 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編, 『韓國文化 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626쪽.

偶從天半話滄桑, 우연히 하늘 가운데에서 창해상전을 얘기하네.
 轆轤幸是仙人屬, 다행히도 수레바퀴처럼 신선의 신이라서
 踏盡紅雲到上方.¹⁴⁾ 붉은 구름 두루 밟아 상방에 이르렀구나.

東風雨後換西風, 동풍이 비 온 뒤 서풍으로 바뀌니
 卷盡繁雲碧漾空. 층구름이 다 걷혀 공중이 푸르구나.
 雨雨風風如是好, 비 오고 바람 부니 이렇게 좋을시고,
 似隨人意補天功.¹⁵⁾ 사람 뜻을 따라서 하늘도 돕는 듯.

當朝一品集中詩, 조정의 정일품인 재상의 시에
 扇面神仙富貴姿. 부채의 면은 신선과 부귀의 모습이구나.
 桃李光輝千百丈, 복숭아꽃 오얏꽃이 천백 길에 빛났으니
 仁風舉似海天時.¹⁶⁾ 은택이 바람 같이 퍼져나가 바다와 하늘에 보여주네.

다음 몇 편의 시구에서도 제주에서의 유배 상황을 느끼게 한다. 한가하게 시골아이들에게 시의 운을 맞추는 무식한 시골 서당의 선생을 우습게 바라보기도 하고, 수선화와 같이 아름다운 꽃은 원래 속세에 물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그 속에 투영하기도 하며, 조선 시대 시서화의 삼절이라고 불리는 자하신위의 서책을 대하고서 하늘이 허락한 타고난 성품이 빼어나다고 감탄한다.

州庠一步如天上, 白日風簷再見欺.(〈口號七絕贈江亭金生 5〉 轉句, 『阮堂全集』 10)
 고을 서당 한 걸음이 천상과 같으니, 대낮의 바람이 처마 엽신여김을 또 보는
 구려.

一切天葩元不染, 世間亦復歷千艱.(〈年前禁水仙花〉 轉句, 『阮堂全集』 10)
 아름다운 꽃 모든 것에 원래 물들지 않는데, 속세라 또다시 온갖 고난 다 겪는
 구나.

14) 金正喜, <小遊仙詞 9>, 『阮堂全集』 9

15) 金正喜, <次癸詹 1>, 『阮堂全集』 10

16) 金正喜, <題彝齋書許維扇面後 2>, 『阮堂全集』 10

天品超然腕底神, 碧蘆舫裏說前因.(〈韓生應者以紫霞書卷要余一語走寫以示〉起句, 『阮堂全集』 10)

타고난 성품이 뛰어나 팔뚝 밑에 신이 도니, 벽로방 속에 지난 일을 얘기하네.

3.2. ‘風’의 시어와 용자

‘天’ 다음으로 빈도수가 높은 글자는 ‘風’이다. 추사의 제주 유배 한시에 쓰인 ‘風雨, 風塵, 南風, 桃花風, 東風, 帆風, 西風, 松風, 隨風, 天風, 春風, 好風’ 등은 유배 생활에서 그의 삶의 바탕을 좌우하는 상징성을 갖는다.

〈표7〉 추사 제주 유배 한시의 ‘風’ 시어와 용자례

용자	시어	빈도수	작 품
風	風雨	3	〈口號七絕贈江亭金生 2〉, 〈偶作〉, 〈次癸詹 1〉
	風塵	1	〈和題石帆本慈妃戴笠小像 3〉
	南風	1	〈咏棋〉
	桃花風	1	〈詠雨 1〉
	東風	2	〈詠雨 2〉 〈次癸詹 1〉
	帆風	1	〈詠雨 1〉
	西風	1	〈次癸詹 1〉
	松風	1	〈汲古泉試茶〉
	隨風	1	〈小遊仙詞 12〉
	天風	2	〈偶作〉, 〈題慈妃便面〉
	春風	3	〈映山紅〉, 〈瀛洲偶吟 1〉, 〈庭草〉
	好風	1	〈偶題 2〉

제주의 바람은 삼다에 속할 만큼 제주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요한 자연환경으로 인식된다. 그만큼 바람은 비와 더불어 삶의 순조로움과 역리를 가늠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을 떠나 유배지에서 만난 제주의 바람은 추사에게 생리적·생태적 울동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그의 유배 생활을 좌우하는 우주의 숨기운이었다.¹⁷⁾

아이들의 업신여김을 받는 유배인이 거처하는 녹나무가 있는 초가집에 심

17) 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302쪽.

하게 몰아치는 비바람은 울적한 추사의 심회를 드러내는 시적 매개물이다. 경칩 후 복사꽃 부는 바람은 그동안 막혔던 제주와 육지와의 뱃길을 열게 하고 기러기들이 자유롭게 북쪽으로 돌아가게 하는 상징성을 갖는다. 봄바람은 영산홍을 피우게 함으로써 추사로 하여금 제주의 자연에 눈을 돌리게 하며 잠시나마 현실적 자아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埋頭帖括套中詩, 침괄투의 시에 몰두하니
里魁村迂付一嗤, 마을 이장과 시골 접장을 한 비웃음에 넘기네.
楠樹草堂風雨甚, 녹나무의 초당에 비바람이 심한데
只緣無力被童欺,¹⁸⁾ 힘이 없는 탓에 아이들의 업신여김이 되었구나.

入雨山光翠合圍, 빗속에 든 산의 풍광이 푸르러 에워쌌는데
桃花風送帆風歸, 복사꽃 부는 바람이 돛에 불어 돌아가네.
春鴻程路無遮礙, 봄철 기러기 노정은 막힐 게 없어
纔見南來又北飛,¹⁹⁾ 남으로 오자마자 북으로 또 날아가는구나.

花紅強字映山紅, 꽃이 붉어 억지로 영산홍이라 이름하였으니
品格元來自不同, 품격은 본디 같지 않다네.
火樹圖中須一補, 붉은 꽃이 만발한 그림 속에 또 하나를 보충하니
別有春風點施工,²⁰⁾ 봄바람이 만들도록 지시함이 별도로 있구나.

이 외에 다음의 시구들에서도 추사의 바람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새벽 구름을 몰고 오는 봄바람은 오랜 가뭄으로 목마른 초목을 활짝 웃게 하고, 바람이 상전창해에 떨어지는 먼지를 사라지게 하며, 봄날의 배는 상쾌한 바람 따라 틀림없이 돌아오리라고 믿음으로써 희망을 의탁한다.

18) 金正喜, <口號七絕贈江亭金生 2>, 『阮堂全集』 10

19) 金正喜, <詠雨 1>, 『阮堂全集』 10

20) 金正喜, <映山紅>, 『阮堂全集』 10

時雨山川破久慳, 東風力幹曉雲還.(〈詠雨 2〉 起句, 『阮堂全集』 10)

때맞은 비에 산천이 오랜 가뭄을 깨뜨리니, 봄바람이 새벽 구름을 힘껏 몰고 돌아오네.

桑海零塵襪底消, 天風上下一逍遙.(〈題慈妃便面〉 起句, 『阮堂全集』 10)

상진창해에 떨어지는 먼지가 발아래 사라지니, 바람이 오르내리며 한 번 소요하누나.

長母相忘此一杯, 春帆定逐好風回.(〈偶題 2〉 起句, 『阮堂全集』 10)

이 한 잔 길이 서로 잊지 말자, 봄날의 배는 틀림없이 상쾌한 바람 따라 돌아오리.

3.3. ‘海’의 시어와 용자

추사의 제주 유배 한시에서 빈도수가 높은 한자는 海(11)이다. 이와 관련한 ‘海湄, 海上, 海外, 海丁, 海天, 碧海, 四海, 桑海’ 등은 추사의 제주 유배 한시 세계에서 핵심적인 시어들이다.

〈표8〉 추사 제주 유배 한시의 ‘海’ 시어와 용자례

용자	시어	빈도수	작 품
海	海湄	1	〈偶作〉
	海上	2	〈小遊仙詞 4〉, 〈海上重九無菊作瓜餅〉
	海外	1	〈偶題 1〉
	海丁	1	〈偶作〉
	海天	1	〈題彝齋書許維扇面後 2〉
	碧海	1	〈水仙花在在處處可以谷量田畝之間尤盛土人不知爲何物麥耕之時盡爲鋤去〉
	四海	1	〈小遊仙詞 4〉
	桑海	2	〈題慈妃便面〉, 〈題贈延曦閣主人〉

바다는 물과 공통성을 가지지만 물과는 다른 공간성을 갖는다. 바다는 하늘과 짝지어질 뿐만 아니라 대지와도 짝을 이룬다.²¹⁾ 하늘이 바다와 육지를 감

21) 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297쪽.

싼다면 바다는 그 육지를 감싸기에 신선 세계인 삼신산이 그 바다 위에 있는 것이다. 추사는 신선 세계인 한라산이 있는 곳에 유배되었으니 자연스럽게 서화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데, 제자 이상적이 보내준 질 좋은 종이를 대하고서는 서화의 인연을 맺을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다. 비록 처음에는 업신여기던 아이들과 바다를 지켜야 하는 제주의 남정들이 한나라 양웅(揚雄)이 칩거 하던 초현정(草玄亭)과 같은 추사의 적소를 찾아와 글자를 묻기까지 하면서 추사에 대한 태도가 달라짐을 인식한다.

天包水土在中間,	하늘이 바다와 육지를 감싸 한가운데 있으니
大地如丸四海環,	대지는 둥글어서 사해가 둘러네.
繞地昨宵行一匝,	어젯밤 지구를 한 바퀴 둘러보았는데,
何曾海上有三山. ²²⁾	무엇 때문에 바다 위에 삼신산이 있는 것인가.

薰閣名箋畫格眞,	훈각의 이름난 종이는 그림 풍격이 참다우기에
半川剡竹妙通神,	반천의 대나무 종이는 기묘하여 신령과 통했구나.
墨緣海外流傳久,	서화의 인연이 바다 밖에 전해 내려온 지 오래니
靑眼相看萬里人. ²³⁾	반기는 눈길로 만 리 밖 사람을 서로 바라보겠네.

元祐罪人惠州飯,	원우의 죄인이 혜주 밥을 먹고
笠屐風雨忘居夷,	비바람에 샷갓과 나막신이 거이에 있음을 잊었네.
島童海丁近相熟,	섬 아이와 바다 남정이 요사이 서로 익숙해져
有時叩玄簾問奇. ²⁴⁾	이따금 초현정을 찾아와 기이한 글자 묻곤 하는구나.

다음 시구에서도 보듯이 전설상의 난새가 나는 변방의 절해고도 해안가에 한라산 서쪽 줄기가 뻗었는데, 비록 추사는 이곳에 유배되었지만 질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은 마치 신선 되는 인연에 인식하지 않는다고 노래한다. 그런가

22) 金正喜, <小遊仙詞 4>, 『阮堂全集』 10

23) 金正喜, <偶題 1>, 『阮堂全集』 10

24) 金正喜, <偶作>, 『阮堂全集』 9

하면 세상의 변화란 잠시 동안에 일어나기에 곧 말을 타고 제주를 떠날 것이라
며 연회각 주인에게 시를 지어 준다.

朱鳥天邊大海湄, 神山蜿蜒走西支. 野中小治僅如斗, 青石郭連短竹籬.(〈偶作〉
首聯, 『阮堂全集』 10)

난새가 나는 하늘 끝 넓은 바다 해안가, 신령한 산이 구불구불 서쪽 줄기가 뻗
쳤구나.

碧海青天一解顏, 仙緣到底未終慳.(〈水仙花在在處處可以谷量田畝之間尤盛土人
不知爲何物麥耕之時盡爲鋤去〉 起句, 『阮堂全集』 10)

길푸른 바다 푸른 하늘 하나같이 활짝 웃으니, 신선 되는 연분 결국 인색한 게
아니로구나.

桑海須臾非異事, 看騎馬過瀛洲.(〈題贈延曦閣主人〉 轉句, 『阮堂全集』 10)

상진창해는 잠깐 동안에 기이한 일이 아니니, 곧 말 타고 영주를 지날 걸세.

3.4. ‘春’의 시어와 용자

‘春’도 추사의 제주 유배 한시에서는 빈도수가 높은 글자이다. ‘春江, 春帆,
春山, 春鶯, 春雨, 春風, 春寒, 春鴻’ 등은 추사의 제주 유배 한시에서 핵심적인
시어이다.

〈표9〉 추사 제주 유배 한시의 ‘春’ 시어와 용자례

용자	시어	빈도수	작 품
春	春江	1	〈口號七絕贈江亭金生 3〉
	春帆	1	〈偶題 2〉
	春山	1	〈偶作〉
	春鶯	1	〈冬青葉大如手掌可以供書〉
	春雨	1	〈詠雨 3〉
	春風	3	〈映山紅〉, 〈瀛洲偶吟 1〉, 〈庭草〉
	春寒	1	〈口號七絕贈江亭金生 6〉
	春鴻	1	〈詠雨 1〉

봄은 햇볕이 따뜻해지며 만물이 소생하여 시작과 희망을 갖게 하는 계절이다. 또한 봄은 양기가 상승하는 계절로, 인간과 자연은 이 속에서 강한 생명력과 희망을 갖는다.²⁵⁾ 산속에 봄비가 촉촉이 내리므로 좋은 종이 같은 천연의 짙은 연두색 감당나무 잎이 크기가 손바닥만큼 커진다. 여기에 자유로운 봄의 앵무새의 노래를 쓸 수 있다고 함으로써 제주의 풍속을 노래한다. 저녁에 봄비가 내리니 쟁기질할 만큼 논물이 불어날 터인데, 소동파가 유배 생활을 했던 해남성과 같은 마을 길에 그가 흠모하는 소동파가 삿갓 쓰고 돌아올 수 있다고 상상한다. 또한 고소대가 있는 고소산에 오르거나 호구산 검지 옆에 있는 천인석에 가고 싶은 봄바람의 꿈을 제주에 왔다 돌아가는 배에 의탁하기도 한다.

想見山中雨露深,	아마도 산속에 비와 이슬이 많았나 보다
生憐鸚鵡抱冬心.	짙은 연두색이 쓸쓸해진 마음을 안았으니 사랑스럽구나.
佳箋贏得天然具,	천연으로 갖추어진 좋은 종이를 얻었으니
供寫春鶯自在吟. ²⁶⁾	자유로운 봄의 앵무새 노래를 쓰기에 좋겠네.

春雨冥濛夕掩關,	빗장을 잠근 저녁에 봄비가 어둑하게 내리니
一犁田水想潺湲.	한 쟁기의 논물 물이 흐르겠지.
任他笑吠黎家路,	웃거나 짓거나 내버려 두어라 여가의 마을 길에
坡老當年戴笠還. ²⁷⁾	옛날의 소동파가 삿갓 쓰고 돌아오리라.

轉想時時想轉迂,	생각 돌릴 때마다 생각 점점 사리에 어두우니
此生那得到姑蘇.	이 한평생 어찌하면 고소산에 갈 수 있겠는가.
歸帆欲託春風夢,	돌아가는 배에 봄바람의 꿈을 의탁하고자 하니
載向千人石上無. ²⁸⁾	신고서 천인석 향해 올라갈 수 없을까.

25) 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351쪽.

26) 金正喜, <冬靑葉大如手掌可以供書>, 『阮堂全集』 10

27) 金正喜, <詠雨 3>, 『阮堂全集』 10

28) 金正喜, <瀛洲偶吟 1>, 『阮堂全集』 10

다음의 몇 편 시구에서도 추사의 봄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봄철의 산이 번민을 없애기도 하고, 봄바람이 섬돌 앞뜰의 무성한 초목을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물들이기도 하며, 꽃샘추위가 갠으로써 강물 빛이 맑아지고 갈매기와 해오라기의 정을 느끼기도 한다.

五雲多處夢如縷, 破悶春山橫翠眉.(〈偶作〉 尾聯, 『阮堂全集』 10)

오색구름 많은 곳에 꿈이 실 같은데, 번민 없애는 봄철의 산이 검푸른 눈썹을 비끼었네.

機鋒最有春風巧, 纔抹紅過又點青.(〈庭草〉 頸聯, 『阮堂全集』 10)

의미 있는 말은 가장 봄바람이 교묘하여, 붉은색 물감을 바르고 또 푸른 물감을 들이네.

惻惻春寒試晚晴, 老人星下小窓明.(〈口號七絕贈江亭金生 6〉 起句, 『阮堂全集』

10)

떨렁한 꽃샘추위가 저녁 늦게 개더니, 남극노인성 아래 작은 창이 환하구려.

3.5. ‘花’의 시어와 용자

추사의 제주 유배 한시에서 가장 빈도수 높은 시어는 ‘水仙(花)’이다. 이 시어는 총 6회나 사용되었으며, 用字例에서도 ‘花’자는 11회나 사용되었다. ‘水仙花, 桃花, 蓮花, 花事, 花紅’에서 보듯이 추사의 제주 유배 한시에서 유의미한 이미지를 지닌 시어들이다.

〈표10〉 추사 제주 유배 한시의 ‘花’ 시어와 용자례

용자	시어	빈도수	작 품
花	水仙(花)	6	〈雪夜偶吟〉, 〈水仙花〉, 〈水仙花在在處處可以谷量田畝之間尤盛土人不知爲何物麥耕之時盡爲鋤去〉, 〈年前禁水仙花〉, 〈偶作〉, 〈題小癡墨芭蕉〉
	桃花	2	〈失題〉, 〈詠雨 1〉
	蓮花	1	〈小遊仙詞 13〉

용자	시어	빈도수	작 품
	花事	1	<村舍>
	花紅	1	<映山紅>

추사에게 수선화는 남다른 추억의 화초이다. 추사는 언젠가 평양에서 중국에서 돌아오는 사신이 평안감사에게 선물로 드린 수선화 한 그루를 얻게 된다. 추사는 이 수선화를 다시 고려자기 화분에 옮겨 심고서는 존경하는 다산 정약옹 선생께 보낸 적이 있다. 이에 다산은 <수선화>라는 제목의 시를 남기고 있는데, 『여유당전서』에 전해지고 있다.²⁹⁾

이런 추사에게 제주에서 지천으로 널려있는 수선화는 그의 제주 유배 한시에서 중요한 시적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가시 올타리가 처진 낡은 초가집 주변이지만 눈이 오는 밤에 옥같이 영롱하게 핀 수선화는 시의 경지이고 그림의 경지가 될 정도로 신비한 모습이었다. 그런가 하면 추사의 적소가 있는 대정현에는 광해군 때 영창대군의 죽음이 부당하다고 상소하다가 10년 동안 위리안치 유배 생활을 했던 동계 정운의 동계정운적려유허비(桐溪鄭蘊謫廬遺墟碑)가 있었다. 당시 정운이 대정현에 유배되면서 손수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어 키웠던 자리에는 그를 배향하면서 세워진 송죽사(松竹祠)가 있었고, 흔히 남쪽에서만 볼 수 있다는 남극노인성 아래에 서로 의지하고 있는 인가들 주변에는 수많은 수선화가 피어 있었다. 세 차레나 추사를 찾아 제주에 왔던 소치 허련의 파초를 그린 지두화를 보고서는 삼백 송이 수선화를 파초와 대비시키기도 한다.

酒綠燈靑老屋中, 술이 푸르고 등불이 밝은 낡은 집에
水仙花發玉玲瓏, 수선화가 피어 옥같이 밝고 찬란하구나.

29) 유홍준, 『완당평전1 : 일세를 풍미하는 완당바람』, 학고재, 2002, 228-229쪽.(丁若鏞, <秋晚金友喜香閣寄水仙花一本其盆高麗古器也詩>, 『定本 與猶堂全書1, 詩文集 6』, 仙風道骨水仙花, 三十年過到我家. 茯老曾携使車至, 秋史今移泚水衙. 窮村絕峽少所見, 得未曾有爭喧譁. 穉孫初擬薤勁拔, 小婢翻驚蒜早芽. 縞衣青帟相對立, 玉骨香肌猶自浥. 清水一盤棋數枚, 微塵不雜何所吸. 時珍本草涪翁詩, 厚誣直欲臨書泣. 糞泥托根云處汚, 肥土開花稱好濕. 始知大隱時隱市, 猶自緇磷不相入.)

尋常雪意多關涉, 평범한 눈 내릴 듯한 기상도 많이 관련되니
詩境空濛畫境同.³⁰⁾ 시의 경지가 어렴풋한 경계인데 그림의 경지도 같구려.

汞鉛寶氣青霞碣, 홍연의 빛 고원한 선비의 유허비요
松竹勁節東門祠. 소나무와 대나무의 늠름한 기개 동문 밖 사당일세.
人家盡依壽星下, 인가들은 모두 다 남극노인성 아래 의지하고
水仙千朵復萬枝.³¹⁾ 수선화 천 송이요 또 만 가지로구나.

小癡雪裏作蕉圖, 소치가 눈 속 파초의 그림을 그리니
直溯鰲川神韻無. 망천을 거슬러 올라가는 정취가 없겠는가.
硯北水仙三百朵, 벼루의 북쪽에 피어 있는 삼백 송이 수선화는
與蕉不二印文殊.³²⁾ 파초와 둘이 아님을 문수보살에게 물어 보게나.

다음의 시구에서도 푸른 시내를 흘러온 오랫동안 지지 않는 복숭아꽃, 물안개가 서려 있는 네 모진 연못의 연꽃, 마을 안의 접시꽃을 그려내고 있다.

洞裏桃花長不落, 何因流出碧溪來(<失題> 轉句, 『阮堂全集』10)
끝까지 안의 복숭아꽃 오랫동안 지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푸른 시내를 흘러왔는가.

蓮花蓮葉都普遍, 不及仙人舌本香(<小遊仙詞 13> 轉句, 『阮堂全集』10)
연꽃이라 연잎 모두 맛보니, 신선의 혀뿌리만큼 향기롭지 못하구나.

三家村里微花事, 開到戎葵一丈紅(<村舍> 轉句, 『阮堂全集』10)
서너 집 마을 안에 꽃 일을 살펴보니, 접시꽃 일장홍이 활짝 피었구나.

30) 金正喜, <雪夜偶吟>, 『阮堂全集』10

31) 金正喜, <偶作>, 『阮堂全集』9

32) 金正喜, <題小癡墨芭蕉>, 『阮堂全集』10

4. 맺음말

지금까지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 한시 작품을 DB화하여 시어와 용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빈도수가 높은 시어와 용자를 추출한 후 그 용례를 살펴보았다.

제주 유배 한시 가운데 빈도수가 높은 3회 이상의 시어는 ‘水仙花, 瀛洲, 風雨, 騎馬 小癡, 神山, 神仙, 慈妃, 天上 村裏, 春風’인데 모두 추사의 제주 유배와 관련된 어휘이다. 이러한 사실은 핵심적인 시어를 의미망으로 재분류하여 2회 이상의 빈도수를 보이는 시어에서도 ‘水仙花, 風雨, 小癡, 神仙, 慈妃, 春風, 癸詹, 冬心, 水仙, 仙人, 兒童, 弱水, 維摩, 赤道, 春雨, 台灣, 海上, 解顏, 紅毛’ 등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추사의 제주 유배 한시의 시어를 역방향으로 정리하면 10회 이상 사용된 시어의 소재는 ‘人(13), 年(13), 風(13)’으로 인간과 시간과 자연이 주요 소재로 작용한다.

추사의 제주 유배 한시에서 추출된 용자를 의미망으로 재분류하면 ‘天(32), 風(27)’이 압도적으로 많은 빈도수를 보이며, 10회 이상 사용된 소재는 ‘水, 春, 雨, 海, 山, 花, 雲’ 등으로 모두가 제주의 자연과 관계된 글자들이다. 이로써 추사가 제주 유배 생활 중에 관심을 보였던 대상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은 추사의 유배 생활과 시 세계를 들여다보는 데 핵심적인 용자들이다.

추사의 제주 유배 한시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시어는 ‘水仙(花)’인데 6회나 사용되었다. 추사는 언젠가 귀하게 선물로 얻은 수선화 한 그루를 다시 고려자기 화분에 옮겨 심고 존경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께 보낸 수선화에 대한 남다른 추억이 있었다. 이러한 추억은 제주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수선화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데, 자연스레 수선화는 추사의 고양된 정서를 대표하는 시적 매개물로 자리매김한다. 이 수선화는 제주에서 유배 생활하는 추사 자신을 비유한 대상으로서 신선같이 여기며 자기의 책상 앞에 옮겨 심는데, 이를 통해 현실을 초탈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다듬는다.

이 글에서 제시한 추사의 제주 유배 한시에 대한 시어와 용자의 분석은 기존의 연구 성과와 비교적 일치한다. 기존의 감상·인상 비평적인 연구 성과를 통계적 분석으로 재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제주 유배 한시를 설정하거나 주된 소재 파악에는 소홀함으로써 시 세계의 초점 파악에 한계점도 드러난다.

앞으로는 철저한 고증을 통해 작품을 제대로 설정하고 DB화된 자료를 통해 좀 더 객관적이고도 다양한 연구 방법론의 모색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金尙憲, 『南槎錄』(奎章閣本)
- 金正喜, 『阮堂全集』 卷十(김정희, 『국역 완당전집』(影印), 서울판사, 1986.)
- 金正喜, 『阮堂先生全集』 卷十(金正喜, 『秋史 金正喜 詩 全集』(影印), 풀빛, 1999.)
- 金春澤, 『北軒居士集』 (金春澤, 『北軒集』(影印), 全國文化院聯合濟州道支會, 2005.)
- 申光洙, 『石北集』(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丁若鏞, 『定本 與猶堂全書』(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趙貞喆, 『靜軒瀛海處坎錄』(趙貞喆, 『靜軒瀛海處坎錄』(影印), 濟州文化院, 2006.)
- 崔 溥, 『錦南崔先生文集』(『耽津崔氏族譜文獻錄』, 耽津崔氏宗親會, 1954.)

2. 논저

- 김재홍, 『한국현대시 詩語辭典』, 고려대학교출판부, 2017.
- 유홍준, 『완당평전 1 : 일세를 풍미하는 완당바람』, 학고재, 2002.
- 유홍준, 『완당평전 2 : 산은 높고 바다는 깊네』, 학고재, 2002.
- 유홍준, 『완당평전 3 : 자료·해제편』, 학고재, 2002.
- 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編, 『韓國文化 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 權赫淳, 「阮堂 金正喜 漢詩의 自然觀 研究」, 弘益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9.
- 金永峯, 「漢詩 理解의 단계론 고찰」, 『冽上古典研究』 12, 冽上古典研究會, 1999.
- 金泰洙, 「秋史 流配詩 研究」, 『漢文學論集』 10, 檀國漢文學會, 1992..
- 盧在俊, 「秋史 金正喜의 晩年期 삶의 詩의 形象化 樣相 研究」, 公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1..
- 부영근, 「秋史 金正喜의 濟州 流配詩 考察」, 『영주어문』 11, 영주어문학회, 2006.
- 서명주, 「秋史 金正喜의 流配期 情緒와 茶思想 研究」,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梁淳瑋, 「朝鮮朝 流配文學 研究 : 濟州島를 중심으로」, 建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2.
- 梁淳瑋, 「秋史 濟州流配漢詩考」, 『논문집』 14(인문학편), 제주대학교, 1982.
- 梁鎭健, 「秋史 金正喜의 濟州 流配 敎學思想 研究」, 『濟州島研究』 9, 濟州學會,

1992.

梁鎮潮, 「李崇仁 漢詩에 나타난 詩語分析 : 疊字와 疊韻을 中心으로」, 『語文研究』 27/4, 韓國語文教育研究會, 1999.

王建宇, 「金正喜와 蘇軾의 流配詩 比較研究」, 中央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7..

장승희, 「추사 김정희의 제주 인식」, 『耽羅文化』 5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7.

鄭後洙, 「秋史 金正喜의 濟州島 流配生活」, 『한성어문학』 15, 한성대학교 한성어 문학회, 1996..

조규백, 「秋史 金正喜의 濟州島 流配漢詩文에 담긴 문학세계 탐색 : 중국 문인 蘇東坡와 관련하여」, 『中國研究』 32, 韓國外國語大學校 中國研究所, 2003.. (UCI : G704-001019.2003.32..008)

扈承喜, 「秋史 金正喜의 文學 研究 : 詩論과 詩를 中心으로」, 梨花女子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3.

홍순석, 「포은한시의 시어와 그 쓰임새」, 『圃隱學研究』1, 圃隱學會, 2007. (UCI : G704-SER000002101.2007.1.1.004)

| Abstract |

A Study on the Poetic Diction of Chusa Kim Jeong-hee's Jeju Exile Poetry

Yoon, Chi-boo

Jeju Univ. Prof.

This article analyzes the poetic words by building DB of Chusa's Jeju exile poetry from The collected works of Wandang and The collected works of Wandang Sunsaeng and then extract the words of high frequency, and it is verified the validity of the existing research result. Among the Jeju exile poetry, the poetic words of more than three times frequencies are Soosunhwa(水仙花), Yeongju(瀛洲), Pungwoo(風雨), Kima(騎馬), Sochi(小癡), Sinsan(神山), Sinsun(神仙), Jagi(慈妃), Cheonsang(天上), Sceonyee(村裏), and Chunpung(春風), and they are all vocabulary related to Jeju exile. When the use words, extracted from Chusa's Jeju exile poetry, are reclassified, it shows Cheon(天, 32), Pung(風, 27) in overwhelming number of frequencies, and the materials used 10 or more time are Soo(水,), Chun(春), Woo(雨), Hae(海), San(山), Hwa(花), and Woon(雲) that are all related words to Nature of Jeju. Soosunhwa(水仙花), which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in the Chusa's Jeju exile Poetry, was used six times. The Soosunhwa is a metaphorical object of Chusa himself who was exiled in Jeju, and he planted them on his desk, and he strengthened his will to rise over his

reality through this.

Key words : Chusa Kim Jeong-hee, Jeju exile poetry, DB, poetic word, use words.